
김수영과 함석헌(2): 함석헌의 씨알 사상과 김수영의 민중론*

최호영 (국립안동대학교, 조교수)

〈목 차〉

- I 서론: 김수영의 사상적 전회와 함석헌의 영향
- II. 혁명의 주체 탐색과 씨알 사상의 등장
- III. 역사의 주체적 접근과 민중의 현재적 의미 발견
- IV. 민중의 자연 표상과 생명 사상의 차별성
- V. 결론: 생명의 혁명과 김수영 민중론의 의의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함석헌의 씨알 사상과의 관련성에 따라 김수영의 민중론에 담긴 특징과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김수영 시인이 4·19혁명을 전후하여 사상적 전회를 감행하는 데 함석헌의 사상은 주된 참조점을 제공하였다. 함석헌은 씨알 사상을 바탕으로 민중 개개인이 지닌 잠재적인 역량을 긍정하고 역사적인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표방하려고 했다. 김수영 또한 당면한 현실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주체로서 자아를 발견하였으며, 동시대 민중들이 고난 속에서 역사를 움직여 가는 주체로 거듭나고 있는 것을 목도하였다. 그들의 글에서 민중은 생명 본연의 능동성을 발휘하는 풀의 형상으로 나타나 있다. 이처럼 그들의 민중론은 1960년대 한국의 담론장에서 특별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주제어: 김수영, 함석헌, 4·19혁명, 씨알 사상, 민중, 갈대, 풀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안동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김수영의 사상적 전회와 함석헌의 영향

익히 알려졌다시피, 4·19혁명은 김수영 시인에게 한국현대사의 첫 장에 기록될 만한 기념비적 사건이자 당대 한국사회가 안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와 직면할 수 있었던 전환점이었다. 이러한 점은 실제로 그의 작품을 검토해 보면 보다 여실하게 감지할 수 있다. 시의 측면에서 볼 때, 그는 초기부터 속도, 책, 거리, 비애, 설움 등을 소재로 하여 서구문명의 이상과 한국의 낙후된 현실 사이의 간극을 노래하지만 4·19혁명을 계기로 혁명, 자유, 적, 민중, 몸 등의 소재를 동원하여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한 권력구조와 미국식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² 4·19혁명 이후에 쓰인 그의 산문에서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보다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를 테면, 그는 혁명 이후 그동안 자신을 매혹시키던 서구의 첨단 사상에 관한 선망에서 벗어나 국내 잡지에 실린 글들에 주목하게 됨으로써 한국사회 전반에서 드러나는 '후진성'을 좀 더 담담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³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혁명 이후 들어선 장면 정권에서 반공주의를 내세워 국민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려는 상황에서도 "역사를 움직여 가는 힘이 정부에 있지 않고 민중에게 있다는 자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을 만큼⁴ 사회분위기가 판이하게 달라졌다고 고백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김수영에게 4·19혁명은 기존의 강압적인 권위에 균열을 내고 '적극

1. 김춘식, 「김수영의 초기 시—설움의 자의식과 자유의 동경」, 『작가연구』 제5호, 새미, 1998, 166~185쪽; 박수연, 「국가, 개인, 설움, 속도—1950년대 시를 중심으로」, 김명인·임홍배 엮음, 『살아 있는 김수영』, 창작과비평사, 2005, 59~83쪽; 여태진, 「김수영의 시와 근대 극복의 한 방식—책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35호, 우리문학회, 2012, 285~315쪽; 이경수, 「임화와 김수영 시에 나타난 '거리'와 '방'의 공간 표상」, 『어문논집』 제85호, 민족어문학회, 2019, 57~103쪽.
2. 김현, 「자유와 꿈」, 황동규 엮음, 『김수영의 문학』, 민음사, 1983, 105~113쪽; 강은교, 「김수영 시의 모티프 연구—시와 혁명」, 김승희 엮음, 『김수영 다시 읽기』, 프레스21, 2000, 335~356쪽; 박지영, 「김수영 시에 나타난 '자연'과 '몸'에 관한 사유」, 『민족문학사연구』 제20집, 민족문학사학회, 2002, 271~299쪽; 김명인, 「혁명과 반동, 그리고 김수영—4·19혁명과 김수영의 정치의식」, 『한국학연구』 제19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213~232쪽.
3. 김수영, 「밀물」, 이영준 엮음, 『김수영 전집 2』, 2018, 98쪽. 이 글에서 다루는 김수영의 텍스트는 『김수영 전집 1』과 『김수영 전집 2』에 수록된 글임을 밝히며 이하 『전집 1』과 『전집 2』로 표기하도록 함.
4. 김수영, 「아직도 안심하긴 빠르다—4·19 1주년」, 『민국일보』, 1961.4.16. 위의 책, 254쪽.

적 자유'를 실행할 수 있는 계기로 다가왔다.⁵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김수영이 당대의 부패한 세대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서 함석헌을 단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당시 사상계를 주도하던 지식인들이 서구를 표준으로 삼아 한국의 근대화를 지향하려 했던 상황 속에서⁶ 함석헌은 누구보다 “한국적이고 토착적인 색채”를 내비치고 있었기 때문이다.⁷ 뿐만 아니라 그는 자유당 정권과 박정희 군부독재의 탄압에 맞서 인간의 정신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운동에 앞장서는 한편, 한국사회에 실질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혁명의 방향성을 설파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함석헌은 4·19혁명 이후 한국사회를 둘러싼 김수영의 시선과 충분히 공명할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김수영이 함석헌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을 표명한 글은 현재로서는 4·19혁명 1주년을 기념하는 글 「아직도 안심하긴 빠르다」 한 편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을 단서로 보건대 매체나 담론상의 측면에서 김수영과 함석헌의 영향관계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김수영은 매체의 측면에서 볼 때 당시 함석헌이 주요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던 『새벽』, 『사상계』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196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글을 발표하고 있었던 『사상계』를 매개로 함석헌의 사상과 공명하고 있었던 것이다.⁸

따라서 김수영과 함석헌의 영향관계를 살피는 작업은 그간 김수영의 사상적 전회를 4·19혁명이라는 외적 상황과의 연관성에 따라 접근하려던 관점에서 벗어나 그의 사상적 전회를 동시대 지성계와의 연관성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이 글은 바로 김수영과 함석헌의 영향관계를 살피는 후속작업

5. 강계숙, 「'미적 변위'의 탄생—4·19혁명이 한국시에 미친 영향 하나」, 우찬제·이광호 엮음, 『4·19와 모더니티』, 문학과지성사, 2010, 84~107쪽.

6. 특히, 함석헌이 주요 필진으로 가담했던 『사상계』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모델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근대화를 추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 느티나무책방, 2017, 60~93쪽 참고)

7. 권보드레, 「새로운 지(知)의 세계를 만들다」, 『1960년대를 묻다—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상상, 2012, 331~336쪽.

8. 『새벽』, 『사상계』 지면을 중심으로 김수영과 함석헌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고찰한 논의로는 최호영, 「김수영과 함석헌(1)—함석헌의 씨알 사상과 김수영의 혁명론」, 『현대문학의 연구』 제75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1, 363~405쪽 참고.

으로서 함석헌의 씨알 사상과의 관련성에 따라 김수영의 민중론에 담긴 특징과 의의를 고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김수영이 함석헌의 씨알 사상(넓게는 생명 사상)의 영향을 통해 혁명의 주체를 어떤 관점으로 탐색해 갔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다음으로, 그가 ‘고난’으로 표상되는 함석헌의 역사관에 영향을 받아 우리 민족의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려 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김수영과 함석헌이 자연 표상을 통해 민중의 상을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하고자 했으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II. 혁명의 주체 탐색과 씨알 사상의 등장

앞서 기술했다시피 김수영과 함석헌은 당시 우리나라 지성계를 주도하던 잡지 『사상계』를 매개로 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여기서 함석헌은 당시 기독교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한국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비롯하여 약 45편에 이르는 방대한 글을 발표하였다. 이 글들에서 함석헌은 혁명의 궁극적인 방향을 모색하거나 혁명의 실질적인 주체를 탐색하고자 했는데, 전자에 관해서는 이미 다른 지면을 통해 논의한 바 있기에⁹ 여기서는 후자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함석헌은 1950년대에 들어 민중을 ‘씨알’이라는 개념으로 호명하면서 이들을 혁명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사상계』에 한해서 보자면, 이 개념은 1957년 6월에 발표한 「윤형중신부에게는 할 말이 없다」라는 글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 글에서 함석헌은 씨알을 민중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씨알”, “역사의 씨알”에서 드러나듯이 이를 전체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¹⁰ 이후 함석헌은 민중보다는 씨알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실(實)”, “참”, “real”과 같이 인간 존재의 바탕이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정의한

9. 위의 글, 367~397쪽 참고.

10. 함석헌, 「윤형중신부에게는 할 말이 없다」, 『사상계』 제47호, 1957.6, 282쪽.

다.¹¹ 이처럼 씨알은 민중에 관한 함석헌의 입장을 살펴보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개념 속에 생명을 둘러싼 근본적인 인식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¹² 왜냐하면, 씨알이라는 단어 속에는 씨앗이 가진 생명력과 창조성이 담겨 있고, 또 알이라는 조어에는 인내천(人乃天) 혹은 대우주와 소우주 속에서 활동하는 인간의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¹³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른바 함석헌의 씨알 사상을 생명 사상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는 차후 김수영의 민중론에 접근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생명에 관한 함석헌의 인식을 살펴보자.

(가) 참이라 지성(至誠)이라 하는 것은 이러한 여느 날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느 때란, 곧, 뜻에서 빠진, 정신적인 것을 붙잡지 않는, 말하자면 맥을 폭 놓고 풀어진 상태로 있는 때다. (...중략...) 이것이 이른바 세속주의다. 세속이라 하나 에브리데이어나 한 말이다. 사실 이것은 생명의 근본 바탕에서 나오는 제 버릇 때문이다. 생명은 시시각각으로 폭발하려 하고 달려나가려 하지만 또 반면에 가만 있으려 평안하려 한다. 하나님은 영원히 쉬지 않는 창조의 하나님인 동시에 영원한 안식의 하나님이다. 이 서로 모순되면서 하나로 되어있는 두 성질로 이 생명의 행진은 되어 나간다. (...중략...) 그러므로 모든 인류의 참 스승, 참 구세주가 가르친 말은 꼭 같이 이 그릇된 무사주의, 안락주의를 버리고 생명 본래의 면목대로 영원한 뜻을 향해 쉬임 없이 마음을 쟁겨 나가라는 것이다.

—「새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새 나라 꿈틀거림(상)」 부분¹⁴

(나) 인격은 생명진화의 가장 높은 맨 끝이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생명의 아주 낮은 원시적인 밑의 단계에 있어서도, 자유의 원리, 따라서 저항의 원리는 그 살림을 지배하고 있다. (...중략...) 생명이 어찌서 무생(無生) 속에서 나왔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고, 그저 생명 그 자체가 자기 설명을 할 뿐이다. 생명은 곧 자기주장이다. (...중략...) 존재의 성격을 살펴보면 거기 대립되는 두가지의 원리가 있는 것을 본다. 하나는 필수록

11. 함석헌, 「씨알의 설움」, 『사상계』 제77호, 1959.12, 161쪽.

12. 기존 논의에서는 함석헌 사상의 다양한 핵심 어휘들이 모두 생명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면서 그의 씨알사상의 핵심을 생명철학 혹은 삶의 철학으로 규정한 바 있다.(강수택, 『씨알과 연대—함석헌의 연대 사상』, 새물결, 2019, 35쪽)

13. 이상록, 「함석헌의 민중 인식과 민주주의론」, 『사학연구』 제97호, 한국사학회, 2010, 178~179쪽.

14. 함석헌, 『사상계』 제93호, 1961.4, 99쪽. 인용문에서 볼드체 표기는 인용자의 것임을 밝히며 이하 생략함.

그대로 있자는 버릇이요 또 하나는 자꾸 변하자는 버릇이다. 이것은 하나인 생명의 두 풀잎 것이다. 물질이나 정신이나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이 버릇이 없는 것은 없다. (…중략…) 그것을 전문적인 학문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나, 어쨌거나 서로 반대되는 듯한 두 성격이 서로 작용하고 있고, 그것이 생명을 물질에서 정신으로, 무생에서 유생으로, 본능에서 인격으로 올라가는 하는 기(機)가 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저항의 철학」 부분¹⁵

(가)의 글은 4·19혁명이 일어난 지 일 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표된 것으로 김수영과 직접 연관된 글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 글에서 함석헌은 당대를 민족 전체의 존폐가 걸린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는 가운데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표방하고 새로운 나라 건설의 상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내비치고 있다. 이 글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나라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혁명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혁명의 본질을 생명의 속성에 따라 간파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그가 말하는 혁명은 일회적인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때에 상관없이 우리의 일상에서 생활화해야 할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정작 그가 보기에 당대 현실에서는 이러한 혁명의 정신이 퇴색해 버린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는 이를 “에브리데이즘(everydayism)” 또는 “세속주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이 상태는 생명 자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생명은 또한 그것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폭발하려 하고 달려나가려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함석헌은 실제로 생명이 가진 이러한 모순의 속성을 “영원히 쉬지 않는 창조”와 “영원한 안식”의 두 성질을 동시에 지닌 하나님의 모습이라든지, 밤과 낮의 두 요소를 통해 운행되는 자연의 이치를 예로 들어 합리화하고 있다. 그에게 ‘이 서로 모순되면서 하나로 되어 있는 두 성질로 인해 생명의 행진은 되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인류가 점차 문명화되어 가고 인간이 점차 이성을 자각하게 됨에 따라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평안, 쾌락, 무사(無事)”를 추구하려는 버릇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사실 함석헌의 입장에서 당시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에

15. 함석헌, 『사상계』 제166호, 1967.2, 11~12쪽.

처하게 된 것 또한 생명 본연의 창조적인 성질을 망각하게 된 것에서 연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지금까지 인류를 사로잡았던 “그릇된 무사주의, 안락주의를 버리고 생명 본래의 면목대로 영원한 뜻을 향해 쉼 없이” 나아가는 것에서 당대의 역사적 과업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함석헌은 당시 한국사회가 처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생명에 내재한 능동성에 따라 혁명의 진정한 방향을 타진하고자 했다.

이러한 점은 (나)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앞서 그가 생명의 속성을 모순의 성질에 따라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글에서도 존재의 성격을 두 대립된 원리에 따라 고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존재는 “될수록 그대로 있자는 버릇”과 “자꾸 변하자는 버릇”과 같은 생명의 두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물질과 정신, 무생과 유생을 막론하고 모든 존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단 하나의 현미경적인 단세포가 그 이전까지 무생의 상태이던 우주를 깨고 출현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놀라운 혁명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함석헌은 진화론의 관점에 따라 생명현상에 접근하고 있다. 말하자면, 물질에서 정신으로, 무생에서 유생으로, 본능에서 인격으로 올라갈수록 생명의 진화는 보다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정점에 바로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위치하고 있다. 인간은 바로 자율성, 자주성과 같은 자아의식을 완전하게 구비한 존재로서 생명진화의 정점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생명의 본질과 떨어진 군상을 곳곳에서 목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생명 본연의 정신을 회복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함석헌은 당대 민중을 생명의 담지자이자 혁명의 주체로 내세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함석헌은 진화론의 관점을 토대로 하여 민중 개개인이 실행해야 할 혁명의 성격을 고찰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글의 다른 부분에서 “진화(to evolve)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정의한 다음에 “생명이 진화하는 것”을 혁명에 견주고 있기도 하다. 그에 따르면, 혁명(revolution)이라는 말에는 진화(evolution)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말하자면, “역사가 혁명의 과정”이라 한다면, 이른바 혁

명은 진화의 반복(re)에 의해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가 가리키는 진화는 앞서 스스로를 향한 의식, 즉 자아의식을 보다 완전하게 구비해 가는 과정이라 말할 바 있는데, 이때 함석헌은 베르그송(H. Bergson)의 관점에 따라 진화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¹⁶ 이런 점은 그가 생명을 ‘로켓’에 비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주지하다시피, 베르그송은 생명의 진화를 “대포에서 쏘아올린 포탄의 궤도”에 빗댄 바 있는데, 이는 생명이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분기하여 무수히 새로운 길들이 갈라지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온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준다.¹⁷ 베르그송은 특히 생명의 진화를 기계론과 목적론의 관점에 따라 파악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나 생명 자체가 가진 우발성과 창조성에 의거하여 ‘창조적 진화’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함석헌 또한 진화, 즉 혁명의 목적이 외부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기보다 인간 내부의 자아를 찾고 이를 부단히 변화시켜 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처럼 생명의 속성과 진화론에 의거한 함석헌의 민중관은 당대의 담론장 내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이 피지배층 일반을 가리키는 지배층의 호명기호로서 사용됨에 따라 기존의 저항성 또는 운동성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민중은 지식인에 의해 철저히 계몽되어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다.¹⁸ 이런 상황에서 함석헌은 다소 기독교의 관점을 투영하여 민중을 종교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중의 자발적인 역량을 긍정하고 사회와 나라의 근본, 바탕, 뿌리가 되는 자리에 민중을 위치시키려고 했다. 실제로 그는 기존의 민이라는 개념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함축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관념적으로 오염된 표현이라 판단하여 씨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민중을 실천적·역동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¹⁹ 민중과 혁명에 관한

16. 참고로 함석헌은 여러 글에서 학창시절에 자신에게 영향을 준 사상가나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서적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 그 중에 베르그송이 포함되어 있다.(함석헌, 「이단자가 되기 까지」, 『사상계』 제72호, 1959.7, 318쪽)

17. 앙리 베르그송, 『창조적 진화』, 황수영 옮김, 아카넷, 2016, 159~160쪽.

18. 황병주, 「1960년대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민중인식」, 『기억과 전망』 제21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114~130쪽.

19. 강수택, 앞의 책, 29~31쪽; 김소남, 「해방 이후 함석헌의 생명사상—장일순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러한 관점은 김수영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 우리 집에는 옮겨올에 처음으로 마루에 난로를 놓았고,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무명 조선 바지를 해 입었고, 조그만 통의 커피도 한 병 마련해 놓고 있다. 이만한 여유를 부끄럽게 여기는 부정(否定)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은 나의 경우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모순의 고민을 시간에 대한 해석으로 해결해 보는 것도 순간적이거나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여유가 고민으로 생각되는 것은 우리들이 이것을 '고정된' 사실로 보기 때문이다. 이것을 흘러가는 순간에서 포착할 때 이것은 고민이 아니다. 모든 사물을 외부에서 보지 말고 내부로부터 볼 때, 모든 사태는 행동이 되고, 내가 되고, 기쁨이 된다. 모든 사물과 현상을 써(동기)로부터 본다—이것이 나의 새봄의 담뱃갑에 적은 새 메모다. 나의 '마음대로'의 새 오역이다. (...중략...)

그것은 과거는 되찾아지기 전에 우선 부정되어야 한다는, 이 역시 너무나 평범한 발전의 원칙에 따른 돌음길. 부정은 끝났다—나의 메모와 메모의 배경과 도구를 돌이켜 볼 때, 나의 내부의 저변에서 모깃소리처럼, 그러나 또렷하게 들려오는 소리. 이 소리의 음미.
—「생활의 극복—담뱃갑의 메모」 부분²⁰

(라) 나의 직관적인 추측으로는, 표면상의 지식인들의 피곤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들의 내면에는 개인의 책임에 대한 각성과 합리주의에 대한 이행이 은연중에 강행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로 귀착된다. (...중략...)

'제정신'을 갖고 산다는 것은, 어떤 정지된 상태로서의 '남'을 생각할 수도 없고, 정지된 '나'를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제정신을 갖고 사는' '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것이 '제정신을 가진' 비평의 객체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창조 생활(넓은 의미의 창조 생활)을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창조 생활은 유동적이고 발전적인 것이다. (...중략...)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란 끊임없는 창조의 향상을 하면서 순간 속에 진리와 미의 전신(全身)의 이행을 위탁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두지만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란 어느 특정된 인물이 될 수도 없고, 어떤 특정된 시간이 될 수도 없다. 우리는 일순간도 마음을 못 놓는다.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는가」 부분²¹

위에서 김수영은 생명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을 계기로 '나'의 주체성의 원천

『인문과학연구』 제25집,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15~16쪽.

20. 김수영, 『전집 2』, 159쪽.

21. 위의 책, 265~266쪽.

을 발견하고 있으며 진정한 혁명의 방향이 결국 부단한 자기 혁신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에서 그는 담뱃갑에 쓰인 과거의 메모를 통해 사소한 생활의 흔적을 들여다보면서 최근 자신을 사로잡은 인식의 전환에 대해 고백하고 있다. 그는 이를 “시간에 대한 해석”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해 그가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수행할 수 있었던 계기에는 생명현상에 관한 포착이 개입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수영은 자신의 집 곳곳에서 생활상의 여유를 느끼게 된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를 “부끄럽게 여기는 부정(否定)의 잔재가” 자신에게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그가 여러 글에서 일상생활 곳곳에 침투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 예리한 촉수를 세우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²² 김수영의 이런 반응은 납득할 만하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나아가 현재 자신이 누리는 여유에서 오는 고민을 더 이상 고민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과 직면하게 된다. 그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생명에 관한 인식이다. 말하자면, 김수영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고정된 사실”로 바라보게 되는 것과 “흘러가는 순간에서 포착”하게 되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이는 앞서 함석헌의 글에서 살펴봤다시피 생명 자체가 가진 대립된 속성을 의미한다. 즉, 김수영은 생명이 가진 정체성, 안정성에서 벗어나 생명이 가진 유동성, 활동성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긍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수영은 이러한 생명의 속성을 통해 자기가 영위해 갈 생활의 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그는 특히 외부와 내부의 대립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꾀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사물을 외부에서 보는 것은 현실을 “고정된 사실”로 바라보게 되는 것과 통하고, 모든 사물을 내부에서 보는 것은 현실을 “흘러가는 순간에서 포착”하는 것과 통한다. 이 또한 앞서 함석헌이 진화론과 관련하여 생명의 속성을 언급한 부분을 상기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명현상을 외부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는 사물의 변화를 외부 환경의 산물로 환원시키고 말지만, 이를 내부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는 사물의 변화를

22. 김수영, 「로터리의 꽃의 노이로제—시인과 현실」, 위의 책, 279~280쪽.

내적 동기의 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함석헌이 진정한 생명현상을 자율성과 자주성으로 표상되는 자아의식에서 찾으려 했다는 점을 상기해 볼 수 있을 텐데, 김수영 역시 “모든 사물과 현상을 씨(동기)로부터” 보는 내적 동기를 통해 “모든 사태는 행동이 되고, 내가 되고, 기쁨이” 되는 순간, 즉 자기 자신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여기서 나아가 그는 단순히 기존의 과거를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의 내부의 저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충실하여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갱신해 갈 거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김수영은 생명의 속성에 의거하여 ‘나’를 생활의 주체이자 혁명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라)에서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그는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모든 현실 문제를 “나의 문제로 귀착”하여 바라보고자 한다. 그가 보기에 4·19혁명 이후 당시 사회에서는 무사안일주의라든지 이기주의와 같은 행태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거기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지식인의 피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 곳곳에서는 “개인의 책임에 대한 각성과 합리주의에 대한 이행”을 언연중에 실현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그에게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혁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물론 우리는 이 지점에서 그가 단순히 당대의 부정적인 세태와 자신의 내면을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그러한 현실 상황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글에서 획일화나 도구화의 기제를 통해 인간의 정신을 말살시키고 있는 당대의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마비되어 있는 자신에게조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²³ 그래서 우리는 그가 자기 자신을 적으로 삼아 당면한 현실 문제와 싸워갈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실제로 김수영은 생명의 속성에 천착하여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 즉 자기 혁명에 임하는 사람의 자세를 언급하고 있다. 그는 이를 다소 시인과 같은

23. 김수영, 「삼동(三冬) 유감」, 위의 책, 218~219쪽.

창작자의 입장에서 다루고 있긴 하지만, 창작의 목표가 결국 부단한 자기 향상에 있다고 한다면, 결국 생명과 동떨어진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 말하자면, 김수영에게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활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어느 특정된 인물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매 순간 자신의 생활 현장에서 행위와 활동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어떤 특정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명 자체가 가진 능동성을 자아의식의 표준으로 삼고 생명이 지닌 유동성을 자기 혁신의 지표로 삼고자 했던 함석헌의 경우를 떠올릴 법하다. 김수영 또한 생명 자체가 지닌 능동성과 유동성을 창조 생활의 원천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에게는 ‘나’와 ‘남’의 구별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을 가진 주체로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며, 이들이 자신의 내적 동기에 따라 “넓은 의미의 창조 생활”을 영위해 가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다. 그에게 생명의 속성에 입각해서 볼 때 “이러한 모든 창조 생활은 유동적인 것이고 발전적인 것”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결국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을 부단한 자기 혁신의 도정에 있으면서도 보편적인 이상과 합치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사회적 영역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처럼 김수영은 생명의 속성에 따라 주체성의 원천을 발견하는 한편, 당대 현실의 모순을 바꿔 나갈 혁명의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었다.

III. 역사의 주체적 접근과 민중의 현재적 의미 발견

앞에서 우리는 함석헌과 김수영이 생명 사상의 관점에서 민중의 상을 어떻게 설정해 갔는가를 살펴보았다. 해방 이후 함석헌은 민중을 씨알로서 호명하고 생명의 궁극적인 담지자로 발견하고자 했는데, 그의 씨알 사상은 4·19혁명 이후 김수영이 혁명의 주체를 탐색하고 혁명의 방향성을 모색해 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라 판단된다. 앞에서는 주로 생명 사상에 입각하여 그들이 민중의 상을 모색해 간 방식에 주목하였다면, 여기서는 그들이 기존의 우리

나라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여 민중의 역사적 위상을 확보하려 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그러므로 625의 남북 싸움의 원인은 스탈린 김일성 루우즈벨트에 있지 않고 이성계에 있다. 이북을 상놈의 땅으로 금을 굶던 날 38선은 시작됐다. 아니다. 거기서도 더 올라간다. 고려 중간에 김부식이 묘청의 혁명운동을 꺾어버리던 날, 평양 이북을 적국처럼 보기 시작하던 날 벌써 일은 글러졌다. 아니다. 그만도 아니다. 김춘추, 김유신이 당나라에 흘꾼거려 드나들던 날 진홍왕이 기껏 간 것이 삼각산이어서 거기 비석을 세우던 날 기운은 벌써 빠졌다. 아니야, 온조가 한가람의 탄 전을 벌리던 날 벌써 문제가 설어졌다. (...중략...)

그러므로 625의 뜻은 눈앞의 사실만을 볼 것 아니라 저 먼 역사의 흐름에서부터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본래 세 점을 한 골은 줄로 맞추는 일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직선상에 놓여서 이 끝에서 저 끝이 내다 보이는 것이 뜻을 앎이다. 그것을 하는 자만이 역사의 주인노릇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6.25싸움이 주는 역사적 교훈」 부분²⁴

(나) 사람도 동물적인 부분이 있는 이상 자연에도 속하지만 동물만은 아닌 것이야말로, 자유하는 정신이야말로 사람이다. 역사는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내가 우리 역사를 고난의 역사로 보지는 까닭이다. 고난을 거꾸로 이용하자는 데 뜻이 있다는 말이다. 불행히 우리 땅의 지정학적 조건이 나빠서 그랬던지, 우리 민족의 오래전부터 가지고 오는 기질에 잘못된 데가 있어 그랬던지, 또는 우리 이웃 민족이 사나워서 그랬던지 모르나, 어쨌든 우리 역사가 뼈투러진 역사인 것은 사실이다. (...중략...)

그러나 위에서 말한 세가지 잘못 중에서 가장 뼈 아프게 생각해야 할 것은 잘못된 역사 해석이다. 숙명관도 잘 바꿔 놓으면 마음이 될 수 있고, 간난도 잘하면 혁명하는 발판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자주하는 정신을 잃고 보는 역사는 영원한 종살이에 묶어둘 뿐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아를 가져야 사람이다. 인격은 스스로 인격을 가진 사람인 줄 자각해서만 인격이다. 민족 전체로 하면 역사를 가져야 국민인데, 역사는 역사적 자각 곧 역사이해가 있어야만 역사다.

—「우리 역사와 민족의 생활신념」 부분²⁵

위에서 함석헌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주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가운데

24. 함석헌, 『사상계』 제61호, 1958.8, 28~29쪽.

25. 함석헌, 『사상계』 제159호, 1966.5, 51~52쪽.

‘고난’으로 점철된 과거의 역사로부터 민중의 주체적인 동력을 발견하고 있다. (가)에서 함석헌은 6·25전쟁이 단순히 민족 전체를 미증유의 위기로 몰아넣은 비극에 그치지 않고 후대의 민중들이 자신의 역사적 과업과 마주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보고 있다. 그는 특히 6·25전쟁의 궁극적인 원인을 외부 환경에서 찾기보다 내적 요인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 내적 요인으로 민족의 성격을 언급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함석헌은 민족의 성격 중 첫 번째 결합으로 우리 민족이 “약소민족”이라는 점을 제기한다. 그가 보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소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을 향한 뿌리 깊은 사대주의에서 유래하긴 하지만, 가장 가깝게는 19세기에 다른 나라들이 이룩한 근대식 민족국가를 우리나라가 제대로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기인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다른 나라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 함석헌은 민족의 성격의 결합으로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한 정치싸움을 들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남과 북의 경계선을 가지게 된 것은 조선 500년 동안 평양 이북과 다른 지역의 차별을 부추긴 당파싸움에서 유래한 것이면서도, 사실 이는 “단군 때부터 한사군(漢四郡), 신라, 고려”와 같은 기나긴 세월을 거쳐 형성된 경계선이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로 결집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요인으로 종교의 결합을 들고 있다.

이처럼 함석헌은 6·25전쟁이 순전히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기보다 그 이전부터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민족의 성격의 결합과 같은 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요인들로부터 각각 “통일정신”, “독립정신”, “신앙정신”과 같은 역사적 과업을 이끌어 내고 있다. 왜냐하면, 그에게 6·25전쟁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서 기록되는 데 그치지보다는 끊임없이 현재적인 가치로 재구성되어야 할 역사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평소 함석헌이 3·1운동, 8·15해방, 4·19혁명, 5·16군사정변 등과 같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이룬 순간을 빈번하게 호명하려 했다는 것을 기억할 만한데, 이는 그에게 이러한 순간들

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현재적인 의미로 소환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함석헌이 6·25전쟁으로부터 “눈앞의 사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먼 역사의 흐름에서부터” 면면히 이어져오는 ‘뜻’을 발견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런 수순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당대의 민중들이 과거의 역사에 대해 주된 노릇을 하게 될 때, 그에게 과거의 역사는 미래의 어느 지점으로 계승될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함석헌은 역사에 관한 종적 탐색을 통해 당대의 민중들이 역사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고난으로 점철된 과정으로 보는 가운데 당대의 민중들이 역사의 주체로서 능동적인 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나)의 글은 이른바 함석헌의 고난사관을 살펴볼 수 있는 글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데, 이러한 관점은 애초 기독교의 고난사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그는 1933년 2월부터 1935년 12월에 걸쳐 잡지 『성서조선』에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를 총22회 연재한 바 있다. 이 글에서 함석헌은 “신의 계획 또는 섭리”로부터 고난의 이유를 찾고서 민족이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자 신이 고난을 통해 민족을 단련시켜 재생의 기회를 준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는 이후 여러 종교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한국사회에 대한 실천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기존의 고난사관을 토착화하려는 입장을 보였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뜻으로 본 한국역사』이다.²⁶ (나) 또한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글로서, 여기서 함석헌은 고난사관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거기서 우리 민족이 주체적인 존재로 설 수 있는 ‘뜻’을 발견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 민족이 “고난의 역사”에 처하게 된 것에는 지정학적 조건, 민족의 성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개입해 있지만, 무엇보다 민족의 주체성을 상실한 요인이 결정적이었다. 물론 그의 의도는 민족의 위기를 고난에서 찾자는 데

26. 함석헌의 고난사관에 담긴 종교적인 함의를 밝히고 이를 민족 담론과 연계하여 사회·역사적인 차원에서 고찰한 논의로는 고병철, 「함석헌의 민족 주체(씨알) 개념과 종교적 기획—1960-70년대의 민족 담론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7권 제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348~369쪽 참고.

있다가보다 그것으로부터 주체의식을 회복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있다.

이처럼 함석헌은 고난의 역사를 주체성 자각의 계기로 삼고 있는데, 그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었던 근거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작동하고 있었다. 첫 번째로, 그는 생명의 속성에 따라 고난의 역사를 바라보는 가운데 민중들이 고난의 역사를 극복할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 앞서 살펴봤다시피, 함석헌은 모든 존재의 공통된 성격을 “자유의 원리” 또는 “저항의 원리”에서 찾은 바 있다. 그에게 존재의 성격은 기존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속성과 계속해서 변화하려는 속성과 같은 생명의 대립된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후자로 갈수록 생명 본연의 능동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모든 존재는 그의 자유를 방해하는 대상과 마주치게 되면 그것에 적극 저항하는 정신을 발휘할 법하다. 이는 물론 태초의 우주에서부터 그 사례를 발견할 수 있지만, 특히 생명진화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거듭난 인간에게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²⁷ 말하자면, 인간은 고난의 상황에 맞서 가장 적극적으로 생명 본연의 능동성을 발휘해 온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함석헌에게 민중은 생명의 궁극적인 담지자로서 고난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저항해 온 존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그는 고난의 역사를 실제 민중들의 활동 무대로 봄으로써 당대의 민중들이 고난의 역사를 극복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테면, 함석헌은 평소 자신의 인생을 뒤바꾼 역사적 사건 중 하나로 3·1운동을 자주 거론한 바 있다. 말하자면, 그에게 3·1운동은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로서의 의식”을 자각하여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저항한 사건으로서 씨알이 지닌 생명의 속성, 즉 자발성과 주체성이 온전히 민중을 통해 실현된 순간이었다.²⁸ 물론 이는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지만, 일회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다른 글에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4·19혁명에 견주고 있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

27. 함석헌, 「저항의 철학」, 앞의 책, 10~11쪽.

28. 함석헌,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1959년 3·1절에 부치는 글」, 『사상계』 제69호, 1959.4, 260~263쪽.

이,²⁹ 그에게 민중들은 고난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생명 본연의 정신을 발휘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함석헌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을 보여주었으며, 우리나라의 역사를 고난사관의 관점에 따라 접근함으로써 민중들이 역사적인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김수영 또한 4·19혁명을 계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와 방향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보다 구체화해 가는데, 이때 앞서 살펴본 함석헌의 논리는 그가 역사와 민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싹틔울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다) 미역국 위에 뜨는 기름이/ 우리의 역사를 가르쳐 준다 우리의 환희를/ 풀 속에서는 노란 꽃이 지고 바람 소리가 그릇 깨지는/ 소리보다 더 서걱거린다—우리는 그것을 영원의/ 소리라고 부른다// 해는 청교도가 대륙 동부에 상륙한 날보다 밝다/ 우리의 재[災], 우리의 서걱거리는 말이여/ 인생과 말의 간결—우리는 그것을 전투의/ 소리라고 부른다// 미역국은 인생을 거꾸로 걷게 한다 그래도 우리는/ 삼십 대보다는 약간 젊어졌다 육십이 넘으면 좀 더/ 젊어질까 기관포나 뗏목처럼 인생도 인생의 부분도/ 통째 움직인다—우리는 그것을 빈궁(貧窮)의 소리라고 부른다// 오오 환희여 미역국이여 미역국에 뜬 기름이여 구슬픈 조상(祖上)이여/ 가뭄의 백성이여 퇴계든 정다산이든 수염 난 영감이면/ 복덕방 사기꾼도 도적놈 지주라도 좋으니 제발 순조로워라/ 차침 예술과 시인들이 아무리 우리의 능변을 욱해도—이것이/ 환희인 걸 어떻게 하라// 인생도 인생의 부분도 통째 움직인다—우리는 그것을/ 결혼의 소리라고 부른다
—「미역국」 전문³⁰

(라) 넓적다리 뒷살에/ 넓적다리 뒷살에/ 알이 배라지/ 손에서는/ 손에서는/ 불이 나라지/ 수젯가에 얼어 빠진/ 수세미 모양/ 그 대신 머리는/ 온통 비어/ 움직이지 않는다지/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대구에서/ 대구에서/ 쌀난리가/ 낫지 않아/ 이만하면 아직도/ 혁명은/ 살아 있는 셈이지/ 백성들이/ 머리가 있어 산단는가/ 것처럼 나도/ 머리가 다 비어도/ 인제는 산단다/ 오히려 더/ 착실하게/ 온몸으로 살지/ 발톱 끝부터로의/ 하극상이란다// 넓적다리 뒷살에/ 넓적다리 뒷살에/ 알이 배라지/ 손에서는/ 손에서는/ 불이 나라지/ 온몸에/ 온몸에/ 힘이 없듯이/ 머리는/ 내일 아침 새벽까지도/ 아주 내치/ 비어 있으라지……

29.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의 오늘」, 『사상계』 제171호, 1967.7.

30. 김수영, 『전집 1』, 318~319쪽.

—「쌀난리」 전문³¹

위의 시에서 김수영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을 보이는 가운데 고난의 현실상황으로부터 민중들의 주체적인 동력을 발견하고 있다. (다)에서 그는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을 기념하여 미역국을 마주한 경험으로부터 독특한 시적 사유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때 그는 미역국 또는 “미역국에 뜬 기름”에 담긴 생명의 속성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둘러싼 새로운 인식을 펼쳐 보이고 있다.³² 먼저, 그는 미역국으로부터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과거의 역사를 읽어 내는 한편, “우리의 역사”에 대한 주체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1연에서 그는 “미역국 위에 뜨는 기름이/ 우리의 역사를 가르쳐준다”고 말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해 미역의 속성으로부터 고난의 역사와 맞서온 “조상”들의 삶의 흔적을 읽어 내고 있다. 물론 미역 자체가 보양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인간의 생명현상과 직결되어 있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미역이 바위에 붙어 파도, 바람, 추위와 같은 주변 환경의 난관을 딛고 탄생하는 과정이 숭한 역경을 딛고 태어나는 인간의 탄생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³³ 이런 관점에 따라 김수영은 과거의 역사로부터 “바람소리가 그릇 깨지는 소리보다 더 서걱거리”는 모습이라든지, “우리의 재[災]라든지, “가뭄의 백성”이 만들어내는 “빈궁(貧窮)의 소리”, 즉 고난의 역사를 읽어 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 과거의 “구슬픈 조상”들은 그러한 상황에 굴복하기보다 거기에 적극 맞서 “전투의 소리”를 발휘함으로써 생명 본연의 능동성을 발휘해 온 존재이다. 그래서 그는 “청교도가 대륙 동부에 상륙한 날”, 즉 서구 중심의 역사보다 우리의 역사가 자신에게 “우리의 환희를” 느끼게 해 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김수영은 “미역국 위에 뜬 기름”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만남을 시도함으로써 자신의 실존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앞서 그가 미역으로부터

31. 김수영, 『민족일보』 창간호, 1961.02.13; 『전집 1』, 225~227쪽.

32. 참고로 기존 연구에서는 김수영이 “미역국 위에 뜨는 기름”으로부터 전통과 같은 정신적 요소를 발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시에서 과거를 둘러싼 새로움의 인식을 읽어낸 바 있다.(김상환, 『김수영과 『논어』』, 북코리아, 2018, 56~61쪽)

33. 황교익, 『수다쟁이 미식가를 위한 한국음식 안내서』, 시공사, 2020, 14쪽.

장대한 역사의 흐름과 조상들의 불굴의 의지를 발견하였다고 살펴본 바 있는데, 이때 우리는 그가 “미역국”과 그 “위에 뜨는 기름”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그는 그것들의 관계를 생명의 속성에 의거하여 바라보고 있다. 말하자면, “미역국 위에 뜨는 기름이” 그 자체가 동등 떠다니려는 유동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뭉쳐 있으려는 전체적인 속성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수영은 미역과 그 위에 뜨는 기름을 겹쳐 놓음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만남을 이룩하게 되고 과거의 역사를 자신의 실존적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는 자양분으로 삼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는 그가 3연에서 미역국을 앞에 두고 “인생을 거꾸로 걷게” 하는 기분을 느끼는 부분에서 엿볼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미역국을 먹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그가 미역국을 앞에 두고 자신의 나이를 헤아리는 것은 납득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가 오히려 미역국을 먹으면서 “삼십 대보다는” “육십”이 좀 더 젊어지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가 이렇게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자신의 나이를 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역사”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정신적인 의미가 그만큼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해 준다. 물론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조상 중에서도 “복덕방 사기꾼 도적놈 지주”와 같이 자신의 안일과 이익에 혈안이 된 경우도 있지만, “퇴계”나 “정다산”과 같이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개척해 온 경우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김수영에게 과거의 역사는 끊임없이 현재적 가치로 재구성되어야 할 정신적인 유산으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김수영은 우리의 역사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을 통해 자신의 실존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그는 당대 민중들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역사의 주체로 부상하는 현장에 주목하고 있다. 먼저, 앞선 시와 마찬가지로 (라)에서도 그는 고난으로 점철된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당대 민중들이 처한 현실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이 시는 특히 고난으로 점철된 현실 상황 가운데 당시 대구에서 일어난 “쌀난리”를 다루고 있다. 당시 대구에서는 춘궁기

가 지속됨에 따라 기근난민들이 속출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응하여 정부 차원에서 구호양곡을 지원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해 보지만 사태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중들은 자연스레 쌀 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데,³⁴ 흥미롭게도 이 사건은 이전에도 대구 지역을 휩쓴 과거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주지하다시피,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극심한 식량난과 물품난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였고, 이에 대해 미군정은 강압적인 식량 공출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군정의 식량 정책은 당시 그들의 통제로 인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던 대구에서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는 삼시간에 전국적인 차원의 대중운동으로 확산된다. 그것이 바로 10월 인민항쟁이다.³⁵ 이처럼 김수영에게 민중들은 생존을 위협하는 고난에 처할 때마다 주체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졌다.

다음으로, 김수영은 나라의 형상을 몸에 비유하여 민중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 보통 인간의 신체가 머리, 팔, 몸통, 다리 등 여러 기관이 모여 형성된 유기체라고 한다면, 그에게 나라 또한 정부, 나(지식인), 민중 등 여러 구성원들이 모여 형성된 유기체라고 할 만하다.³⁶ 하지만 정작 문제적인 것은 이러한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전체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와 민중들이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에서 머리와 나머지 신체 기관의 관계를 통해 형상화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에서 머리는 정부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비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상태는 여러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머리가 비어 있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력함이 팽배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

34. 이 당시의 상황은 「난민들이 시위 『쌀』 달라고(대구)」, 『동아일보』, 1961.4.29, 3쪽; 「쌀 달라는 난민호 소 2일에도 계속(대구)」, 『동아일보』, 1961.5.2, 3쪽 등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35. 10월 인민항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 과정, 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정진아 외, 『한국현대사 1』, 푸른역사, 2018, 159~177쪽 참고.

36.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김수영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법한 함석헌의 글 중에서 혁명의 원리를 수레바퀴에 비유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수레바퀴는 축, 체, 살이라는 세 요소가 맞물려 하나의 운동을 일으켜 낼 수 있는데, 이때 각각의 요소는 하나님, 민중,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이 사랑의 원리에 따라 하나의 전체를 이루게 될 때 혁명의 본질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함석헌, 「국민 감정과 혁명완수」, 『사상계』 제90호, 1961.1, 36쪽)

면, 1연에서 “수젯가에 얼어 빠진/ 수세미 모양”으로 머리가 온통 비어 있는 상황과 맞물려 “넓적다리 뒷살”에는 알이 배거나 “손에서는” 불이 나는 것과 같이 다른 신체 기관이 역경에 처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무능력함이 극에 달함에 따라 민중들은 일상생활에서 갖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머리가 비어 있다는 것은 정부의 억압이나 통제가 극에 달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3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백성들”이나 “나”나 “머리가 다 비”는 상황에서도 “발톱 끝으로부터의 하극상”과 같은 다른 신체 기관의 작용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앞서 정부의 무능력함으로 인해 고난의 상황에 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신체 기관의 능동성을 획득함에 따라 혁명의 주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김수영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당대 민중들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혁명의 주체로서는 순간을 목도할 수 있었다.

IV. 민중의 자연 표상과 생명 사상의 차별성

앞에서 우리는 함석헌과 김수영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내 보이고 있으며, 민중의 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정립해 갔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생명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한 주체적인 인식을 보일 수 있었으며, 당대 민중들이 역사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동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담론상의 측면에서 그들의 영향관계를 타진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로 그들의 텍스트에서 민중의 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을 느낀다. 미리 말해 두자면, 이들은 특정한 자연물에 의탁하여 민중의 상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생명 사상의 공통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가)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못되는 사람이다. 그저 사람이다. 민중이다. 민(民)은 민초(民草)라니 풀, 같은 것이다. 나는 풀이다. 들에 가도 있는 풀, 산에 가도 있는 풀, 동양에도 있는 풀, 서양에도 있는 풀, 옛날도 그 풀, 지금도 그 풀, 이담에도 영원히 그 풀일 풀, 어

디서나 언제나 다름없는 한 빛깔인 푸른 풀. 나는 사람 중의 풀이지, 아름다리 나무도, 나는 새도, 달리는 짐승도, 버러지도, 고기도 아니다. (...중략...)

밟아도 밟아도 사는 풀, 비어도 비어도 또 돌아나는 풀, 너는 무한의 노래 아니냐? 다 죽었다가도 봄만 오면 또 나는 풀, 심은 이 없이 나는 풀, 너는 조물주(造物主)의 명함 아니냐? 푸른 너를 먹고 소는 흰 젖을 내고, 사람은 붉은 피가 뛰고, 소리가 없는 너를 먹고 꺾꼬리는 노래하고 사자는 부르짖고 썩어진 물에서나 마른 모래밭에서나 다름없는 향기를 너는 뿜어내니 너는 신비의 꽃이 아니냐?

—「할 말이 있다」 부분³⁷

(나)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르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끝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르고 풀뿌리가 눕는다

—「풀」 전문³⁸

위에서 함석헌과 김수영은 민중을 ‘풀’에 비유하여 고난의 상황 속에서 능동적인 생명력을 발휘하는 존재로 그려내고 있다.³⁹ 아마도 이들이 공통적으로 전통 사상 중에서 유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민중을 민초(民草), 즉 풀에 의탁하여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공자의 『논어』에서 풀이 어떠한 정치적 상황을 비유하기 위한 장치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논어』에서는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다. 풀 위로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게 마련이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공자가 이 구절에서 바람과 풀의 관계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자신의 덕치주의의 이상인

37. 함석헌, 『사상계』 제44호, 1957.3, 206~207쪽.

38. 김수영, 『현대문학』, 1968.8: 『전집 1』, 388쪽.

39.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함석헌이 1950년대 후반부터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기 위해 민중을 주체로 호명하는 주체 형성 담론을 표방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때 함석헌은 민중을 민초=풀=씨알로 호명함으로써 이들을 권력자, 정치가, 지배자들에 대항하는 주체로서 거론할 수 있었다. 대표적 글로는 「윤형중신부에게는 할 말이 없다」, 『사상계』 제47호, 1957.6: 「이단자가 되기까지」, 『사상계』 제72호, 1959.7 등을 들 수 있다. (윤상현,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 함석헌의 주체 형성 담론의 변화—민중·민족·국민 담론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제11호, 한국사학회, 2013, 365~384쪽 참조)

데, 이는 당시 노나라의 권력자인 계강자(季康子)가 일삼던 가혹한 형법주의에 대항하여 공자가 내세운 정치관이었던 것이다.⁴⁰ 이처럼 공자의 경우 군자의 덕이 소인의 덕을 감화시킴에 따라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함석헌과 김수영은 그러한 봉건적 관계에서 벗어나 민중을 주체적인 존재로 격상시키고자 했다.

(가)에서 함석헌은 먼저 민중을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보편적인 존재이자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는 존재로 그려내고 있다. 말하자면, 그는 풀이 지리적인 경계나 시간적인 구획을 벗어나 있는 보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민중과 동일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풀을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생명에게 자양분을 제공하는 존재로 봄에 따라 이를 민중과 동일시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으로, 함석헌은 민중을 고난의 현실 상황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하는 존재로 그려내고 있다. 그가 보기에 풀은 겨울에 이르러 다 죽었다가도 봄이 오면 다시 탄생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민중과 같은 대상으로 볼 만하다. 심지어 풀은 누가 밟는다거나 베는 것과 같이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민중을 표상하는 대상으로 볼 법하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함석헌이 풀을 생명 사상의 관점에 입각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그는 민중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 생명 본연의 능동성을 발휘하여 역사의 주체로 설 수 있었다고 본 것처럼, 여기서도 풀을 고난으로 집약되는 현실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꿈틀거림”과 같은 저항의 목소리를 높이는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에게 생명 본연의 능동성은 반발, 저항과 같은 행위를 통해 구현된다고 볼 때, 풀은 민중과 마찬가지로 생명 본연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김수영 또한 민중을 풀에 비유하고자 했다. (나)는 김수영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시로, 그간 민중을 둘러싼 그의 시적 사유를 응축하고 있는 작품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만큼 이 시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민중주의의 관점

40. 김상환, 앞의 책, 170쪽.

을 비롯하여 민주주의에서 벗어나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으나,⁴¹ 그 어느 쪽으로도 민중을 선택적인 담론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정작 함석헌의 민중론과 연결해 본 경우는 없다. 총3연으로 이루어진 이 시에서 바람과 풀의 관계는 연이 전개될수록 점차 역전해 가고 변화해 가는 상황에 놓여 있다. 기존의 독법에 따른다면, 이 시에서 풀은 바람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끌리는 존재로 나타나지만 점차 고난의 상황에 적응하게 되면서 자신이 처한 환경을 능동적으로 개척해 가는 존재로 탈바꿈하게 된다.⁴² 이렇듯 이 시에서 풀은 바람과의 관계를 통해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나고 있는데, 이 글에서 견지해 온 문제의식에 보건대 바람과 풀의 관계는 생명 사상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에 설정되어 있는 바람의 성격에 관한 부분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바람은 기본적으로 풀을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 구도에 따라 바람을 마냥 부정적인 대상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1연에서 바람은 강한 추위와 폭설을 몰고 오는 북풍이 아니라 자연물에게 일정한 영양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동풍”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풀은 바람으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물을 제공받음으로써 대지에 더욱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풀에게 고난의 상황은 자신을 생존의 위기에 몰아세우는 원인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생명 본연의 능동성을 획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시에서 풀이 고난의 상황에서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원동력에 주목할 수 있다. 앞서 우리는 풀이 외부로부터 오는 난관을 딛고 점차 주체적인 존재로 변화해 간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때 풀이 주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에 관한 물음을 제기해 볼 법하다. 시적 정황으로 보건대 그것은 “풀뿌리”와 같은 보이지 않는 힘, 즉 풀의 내부에 잠재한 생명의 속성에서 유발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생명

41. 강용식, 「김수영의 시『풀』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와 그 초월성」, 『민족문화연구』 제40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 247쪽.

42. 김유중, 『김수영과 하이데거』, 민음사, 2007, 255~263쪽.

은 고난의 상황에 직면하여 반발하고 저항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난의 상황을 거쳐 점차 진화해 가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시에서 연을 전개해 갈 때마다 더 거친 바람이 불어오는 상황에서도 풀이 자신의 내적 동력을 발휘하여 능동적인 존재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김수영과 함석헌은 생명 사상에 입각하여 민중을 풀로 비유하는 가운데 민중을 생명의 궁극적인 담지자이며 혁명의 실질적인 주체로 표방할 수 있었다. 물론 생명 사상의 관점에서 민중을 바라보는 그들의 입장에는 공통점과 함께 차별성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 이러한 점 역시 그들이 민중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바라보는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사람은 갈대더라,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더라. (...중략...)

갈대도 사람도 생명의 자람에는 한정이 없는 것이지만 자연에도 인생에도 또 우리 뜻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법칙이 있고 한계가 있다. 가을이 되면 아무리 잘 자라던 갈대도 자라기를 그만두고 눕혀질 수밖에 없는 모양으로 사람의 살림, 사업의 발전에도 한계가 있다. 그럴 때는 어찌하나? 겉으로 제약(制約)을 받으면 속으로 자라야 한다. (...중략...)

갈대의 운명은 뺏뺏이 서는 것으로만 다 되지 않는다. 종당은 꺾이는 날이 오고야 만다. 갈대는 갈대기 때문에 꺾이고야 만다. 아무리 생각을 깊이 하고 현실을 초월했다 하더라도 사람인 답에는 죽는 날이 오고야 만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 한 번 변화하여야만 한다. 갈대로서는 실패인듯 하지만 그것은 모든 유(有)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생각하는 갈대」 부분⁴³

(라) 고민이 사라진 뒤에/ 이슬이 앉은 새봄의 낮익은 풀빛의 영상이/ 떠오르고 나서도/ 그것은 또 한참 시간이 필요했다/ 시계를 맞추기 전에/ 라디오의 시종(時鐘)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안타깝다// 봄이 오기 전에 속옷을 벗고 너무 시원해서 설워지듯이/ 성급한 우리들은 이 발견과 실감 앞에 서렵기까지도 하다/ 전 아시아의 후진국 전 아프리카의 후진국/ 그 섬조각 반도조각 대륙조각이/ 이 발견의 봄이 오기 전에 옷을 벗으려고/ 뚜껑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 라디오의 시종을 고하는 소리 대신에 서도가(西道歌)와/ 목사의 열띤 설교 소리와 심포니가 나오지만/ 이 소음들은 나의 푸른 풀의 가냘픈/ 영상을 꺾지 못하고/ 그 영상의 전후의 고민의 환희를 지우지 못한다// 나는 옷을 벗는 다 엉클 샘을 위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무거운 겨울옷을 벗는다/ 겨울옷의 영상도

43. 함석헌, 『사상계』 제100호, 1961.11, 36~40쪽.

충분하다 누더기 누빈 옷/ 가죽옷 융옷 솜이 물린 솜옷.../ 그러다가 드디어 나는 월남인이 되기까지도 했다/ 잉클 샘에게 학살당한/ 월남인이 되기까지도 했다

—「폴의 영상」 전문⁴⁴

위에서 함석헌과 김수영은 특정한 자연물에 의탁하여 민중이 외부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그것의 범주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에서 함석헌은 앞서 민중을 폴에 비유한 것과 달리 이를 '갈대'에 비유하고 있다. 그에게 민중은 생명의 원리를 가장 본격적으로 체현하고 있는 존재라 할 만한데, 여기서는 그러한 민중의 모습을 자연의 질서에 따라 점차 변화해 가는 갈대의 모습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갈대는 이른 봄 바닷가에서 채 녹지 않은 얼음을 뚫고 연한 순을 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퍼런 갈발을 이루고 말 정도로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갈대는 여름이 되면 서로 잎을 부딪치며 자라날 만큼 왕성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언젠가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것과 같이, 생명의 과정에 놓인 갈대의 성장 또한 어느 순간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그동안 수많은 비바람을 견디는 등 산전수전을 겪어온 갈대가 가을이 되면 결국 자신을 구부러지게 만드는 자연의 순리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함석헌은 이러한 고난의 순간이야말로 생명의 보다 높은 정신을 표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다. 말하자면, 고난의 순간에 처한 갈대는 '피리'와 같은 다른 존재로 탈바꿈함으로써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함석헌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갈대의 모습을 통해 민중의 범주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는데, 이는 민중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명명하는 부분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주지하다시피, 이 표현은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B. Pascal)로부터 빌려 온 것이다. 파스칼은 유교로 남은 그의 대표작 『팡세』에서 모순으로 가득한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갈대에 비유한 바 있다. 그가 보기에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에 불과하다. 인간은 모든

44. 김수영, 『한국문학』, 1966.9: 『전집 1』, 335~336쪽.

심승 중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점에서 “한번 뽑은 증기, 한 방울의 물이 면 그를 죽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인간은 언젠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주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위대한 존재이기도 하다.⁴⁵ 인간은 이처럼 비참과 위대라는 이중성을 동시에 지닌 모순된 존재인데, 파스칼은 인간의 존엄성 중 가장 위대한 것으로 바로 “사유(思惟)”를 손꼽고 있다.⁴⁶ 왜냐하면, 사유는 인간이 자연적 존재로서의 제약에서 초월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함석현은 민중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나아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그에게 민중은 누구나 생각의 맹아를 품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자율성과 자주성을 표방하는 개인이기도 하지만, 생각의 초월성을 통해 자신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연대성과 전체성을 겨냥하는 집단이기도 했던 것이다. 물론 여기서 그가 전체의 범주를 하느님의 뜻과 같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거론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당대의 맥락에서 볼 때 민족을 강하게 환기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함석현은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을 근대식 민족국가를 완성하지 못한 것에서 찾은 바 있으며,⁴⁷ 당시 우리나라가 민족과 민족문화를 바로 세우고 나서야 세계적인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고⁴⁸ 말한 바 있다.

이처럼 함석현에게 민중의 범주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소 민족주의에 귀결될 여지가 다분하였다면,⁴⁹ 김수영의 경우 그와는 다른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라)에서 김수영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풀’로부터 고난의 상황에 처한 민중의 형상을 읽어내고 있는데, 이때 그가 제시하고 있는 민중의

45. 블레즈 파스칼, 『팡세』, 이환 옮김, 민음사, 2021, 213쪽.

46. 위의 책, 같은 쪽.

47. 함석현,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6·25싸움이 주는 역사적 교훈」, 앞의 책, 27쪽.

48. 함석현, 「새 윤리」, 『사상계』 제35호, 1956.5, 254쪽.

49. 이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를 테면, 함석현이 4·19혁명 이후 전체로서의 민중을 지향함에 따라 민중이 지닌 개별적 차이를 무화시키고 있다거나 민중=국민으로 치환함에 따라 기존의 저항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한 논의를 들 수 있다. (이상록, 앞의 글, 176쪽; 윤상현, 앞의 글, 395~396쪽)

범주가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아프리카”와 같은 다른 민족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차원에까지 민중의 범주를 확장할 수 있었던 계기로는 라디오 시청을 들 수 있다. 1차적으로 그에게 라디오를 시청하는 것은 이상적인 세계와 낙후된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는 이를 “고민의 환희”와 같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말하자면, 김수영은 라디오로부터 들려오는 봄소식을 통해 “새봄의 낮익은 풀빛의 영상”을 떠올려 보지만, 그것은 오히려 겨울과 같은 낙후된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의 현실을 깨닫게 만든다.⁵⁰ 이는 그가 봄소식을 듣고 성급하게 “속옷”을 벗어 보지만 여전히 “겨울옷”을 입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실감하는 부분에서 드러난다. 즉, 그는 아무리 일상생활을 상징하는 “시계”보다 문명의 이기를 상징하는 “라디오의 시종(時鐘)”에 익숙해 있어도 여전히 자신의 주변 곳곳에서 드러나는 “후진국”으로서의 현실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⁵¹ 이런 점에서 그가 라디오로부터 획득한 “풀빛의 영상”은 당시 우리나라가 처한 실제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나아가 김수영은 라디오를 통해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차원의 약소국가들이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을 발견함으로써 탈민중주의의 관점을 내비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김수영은 평소 라디오에 대해 자신을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 종속시키게 만드는 기기로 받아들였지만,⁵² 그가 이것을 무조건 부정적인 대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라디오라는 전파 매체가 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동 시간대의 소식을 자신에게 제공해 준다는 이로움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 따라 그는 우리나라를 넘어 “전 아시아”와 “전 아프리카”가 라

50. 기존 연구에서 이 시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미디어와 시적화자의 관계에 따라 이 시를 분석한 논의로는 주영중, 「미디어를 통해 본 김수영의 시세계—대중매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43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2, 29~32쪽 참고.

51. 실제로 김수영은 자신의 시작 노트에서 이 시를 짓게 된 동기로 소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주변 곳곳에서 소음의 형태로 몰아타치는 문명의 폭력성과 마주하여 이 시를 창작하게 된 것이다. (김수영, 「시작 노트 7」, 『전집 2』, 560~563쪽)

52. 참고로 이러한 김수영의 인식은 「금성라디오」(1966.9.15)에서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디오로부터 비롯된 “발견의 봄” 앞에서 “겨울옷”을 벗어 보지만 여전히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그는 심지어 라디오의 채널이 바뀌어서 라디오로부터 “서도가(西道歌)”라든지, “목사의 열띤 설교 소리”라든지, “심포니”와 같은 다른 소리들이 흘러나오더라도, 그런 소음들이 “나의 푸른 풀의 가냘픈/ 영상”, 즉 세계적인 차원의 약소국가들이 처한 고난의 상황을 지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김수영이 민족의 경계를 넘어 고난의 상황에 처한 민중들 간의 동질성을 발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심지어 그는 당시 베트남전에서 “영클 샘에게 학살당한/ 월남인이 되기”를 자처함으로써 미국식 자본주의 문명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약소국가 민중들 간의 연대 가능성을 표방하고자 했다.⁵³ 이런 점에서 김수영의 민중론은 민중개개인의 잠재적인 역량을 세계적인 차원의 범주까지 확장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생명의 혁명과 김수영 민중론의 의의

지금까지 우리는 함석헌의 씨알 사상과 연계하여 김수영의 민중론에 담긴 특징과 의의를 고찰하고자 했다. 그동안 4·19혁명은 김수영의 문학에서 중대한 전환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거론되어 왔는데, 그가 혁명의 근본적인 방향을 모색하거나 혁명의 실질적인 주체를 탐색하는 데 함석헌의 사상은 하나의 참조점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함석헌의 씨알 사상은 그가 민중개개인을 생명의 궁극적인 담지자로 발견하고 혁명의 실질적인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함석헌은 1950년대에 들어 민중을 생명의 원천인 씨알로 호명함으로써 민중개개인이 지닌 주체적인 역량과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역설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종적인 차원에서 고찰하여 고난으로 점철된 역사를 발견하는 한편, 당대의 민중들이 민족의 위기를 극

53.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당시 함석헌 또한 베트남전쟁에 담긴 허구성을 꿰뚫어 보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그가 이러한 뼈뿔어진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민중들의 주체성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함석헌, 「우리 역사와 민족의 생활신념」, 앞의 책, 50쪽)

복하고 역사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뜻을 발견하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보건대 함석헌의 씨알 사상은 자율성이나 확장성 등 생명 자체의 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당대 민중들을 진정한 혁명의 주체로 표방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김수영은 4·19혁명을 전후로 이러한 함석헌의 사상과 공명하는 가운데 혁명의 방향과 주체를 탐색하고자 했다. 그는 당면한 현실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주체로서 자아를 발견하였으며, '나'의 내적 동기를 원천으로 삼아 지속적인 일상 혁명을 기도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역사에 관한 주체적인 인식을 보이는 가운데 동시대 민중들이 고난 속에서 역사를 움직여가는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목도하였다. 이런 점에서 김수영과 함석헌에게 혁명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지점을 건드리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 혁명은 인간 개개인이 생명 본연의 정신을 발휘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한편, 각자의 주체적인 역량을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생명의 혁명이라 부를 만하다. 그들의 글에서 이러한 혁명을 수행해 가는 민중의 형상은 고난의 상황에 굴하지 않고 생명 본연의 능동성을 발휘하는 풀의 형상으로 나타나 있었다. 이때 우리는 함석헌이 다소 민족주의의 관점에 치우쳐 민중을 바라보는 것과 달리, 김수영의 경우 탈민족주의의 관점에 따라 민중을 바라보려는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수영과 함석헌의 민중론은 1960년대 한국의 담론장 내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실제로 당시 우리나라에서 민중은 피지배층 일반을 가리키는 지배층의 호명기호로써 사용됨에 따라 기존의 저항성 또는 운동성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있었거니와 지식인에 의해 계몽되어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의 민중론은 민중 개개인에게 자율적인 위상을 부여하고 이들을 역사의 궁극적인 담지자로 돌려놓으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따라서 김수영의 민중론은 생명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민중을 혁명의 실질적인 주체로 자리매김하려는 기획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 강수택, 『씨울과 연대—함석헌의 연대 사상』, 새물결, 2019.
- 강웅식, 「김수영의 시『풀』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와 그 초월성」, 『민족문화연구』 제40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 239~264쪽.
- 고병철, 「함석헌의 민족 주체(씨알) 개념과 종교적 기회—1960-70년대의 민족 담론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7권 제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347~375쪽.
- 권보드래, 「새로운 지(知)의 세계를 만든다」, 『1960년대를 묻다—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상상, 2012.
-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 느티나무책방, 2017.
- 김명인·임홍배 엮음, 『살아 있는 김수영』, 창작과비평사, 2005.
- 김명인, 「혁명과 반동, 그리고 김수영—4·19혁명과 김수영의 정치의식」, 『한국학연구』 제19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213~232쪽.
- 김상환, 『김수영과 『논어』』, 북코리아, 2018.
- 김소남, 「해방 이후 함석헌의 생명사상—장일순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25집,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9~31쪽.
- 김승희 엮음, 『김수영 다시 읽기』, 프레스21, 2000.
- 김유중, 『김수영과 하이데거』, 민음사, 2007.
- 김춘식, 「김수영의 초기 시—설움의 자의식과 자유의 동경」, 『작가연구』 제5호, 새미, 1998.
- 박지영, 「김수영 시에 나타난 '자연'과 '몸'에 관한 사유」, 『민족문화사연구』 제20집, 민족문화사학회, 2002, 271~299쪽.
- 블레즈 파스칼(B. Pascal), 『팡세』, 이환 옮김, 민음사, 2021.
- 앙리 베르그송(H. Bergson), 『창조적 진화』, 황수영 옮김, 아카넷, 2016.
- 여태천, 「김수영의 시와 근대 극복의 한 방식—'책'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35호, 우리문학회, 2012, 285~315쪽.
- 우찬제·이광호 엮음, 『4·19와 모더니티』, 문학과지성사, 2010.
- 윤상현,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 함석헌의 주체 형성 담론의 변화—민중·민족·국민 담론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제11호, 한국사학회, 2013, 363~403쪽.

- 이경수, 「임화와 김수영 시에 나타난 ‘거리’와 ‘방’의 공간 표상», 『어문논집』 제85호, 민족어문학회, 2019, 57~103쪽.
- 이상록, 「함석헌의 민중 인식과 민주주의론」, 『사학연구』 제97호, 한국사학회, 2010, 147~190쪽.
- 이영준 엮음, 『김수영 전집 1』, 민음사, 2018.
- _____, 『김수영 전집 2』, 민음사, 2018.
- 정진아 외, 『한국현대사 1』, 푸른역사, 2018.
- 주영중, 「미디어를 통해 본 김수영의 시세계—대중매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43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2, 7~43쪽.
- 최호영, 「김수영과 함석헌(1)—함석헌의 씨알 사상과 김수영의 혁명론」, 『현대문학의 연구』 제75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1, 361~403쪽.
- 함석헌, 「할 말이 있다」, 『사상계』 제44호, 1957.3.
- _____, 「윤형중신부에게는 할 말이 없다」, 『사상계』 제47호, 1957.6.
- _____,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6·25싸움이 주는 역사적 교훈」, 『사상계』 제61호, 1958.8.
- _____,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1959년 3·1절에 부치는 글」, 『사상계』 제69호, 1959.4.
- _____, 「이단자가 되기까지」, 『사상계』 제72호, 1959.7.
- _____, 「씨알의 설움」, 『사상계』 제77호, 1959.12.
- _____, 「국민감정과 혁명완수」, 『사상계』 제90호, 1961.1.
- _____, 「새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새 나라 꿈틀거림(상)」, 『사상계』 제93호, 1961.4.
- _____, 「생각하는 갈대」, 『사상계』 제100호, 1961.11.
- _____, 「우리 역사와 민족의 생활신념」, 『사상계』 제159호, 1966.5.
- _____, 「저항의 철학」, 『사상계』 제166호, 1967.2.
- _____, 「뜻으로 본 한국의 오늘」, 『사상계』 제171호, 1967.7.
- 황교익, 『수다쟁이 미식가를 위한 한국음식 안내서』, 시공사, 2020.
- 황동규 엮음, 『김수영의 문학』, 민음사, 1983.
- 황병주, 「1960년대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민중인식」, 『기억과 전망』 제21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110~337쪽.
- 「난민들이 시위 『쌀』 달라고(대구)」, 『동아일보』, 1961.4.29.
- 「쌀 달라는 난민호소 2일에도 계속(대구)」, 『동아일보』, 1961.5.2.

Abstract

Kim Su-Young and Ham Seok-heon(2):
Ham Seok-heon's Idea of Ssial and Kim Su-young's People Theory

Choi, Ho-young(Andong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Kim Su-young's people theory according to its relevance to Ham Seok-heon's idea of Ssial. The idea of Ham Seok-heon provided the main reference point for poet Kim Su-young to make an ideological change before and after the April 19 Revolution. Ham Seok-heon tried to emphasize the independent capacity and potential growth possibility of each individual by placing the people in the Ssial as the source of life. His idea of Ssial was an attempt to present the people of the time as the true subject of revolution based on the properties of life itself, such as autonomy and expandability. Kim Su-young also discovered the self as a subject that could substantially change the current reality, and witnessed that contemporary people are being reborn as subjects who move history in the midst of hardship. In their writings, the people is represented in the form of grass that demonstrates the intrinsic activity of life. As such, their people theory has a special status in the discourse field of Korean in the 1960s.

Keywords: Kim Su-young, Ham Seok-heon, The April 19 Revolution, Idea of Ssial, People, Reed, Grass

논문 투고일 : 2022년 02월 28일
심사 완료일 : 2022년 03월 27일
게재 확정일 : 2022년 04월 02일